

국제경제 및 에너지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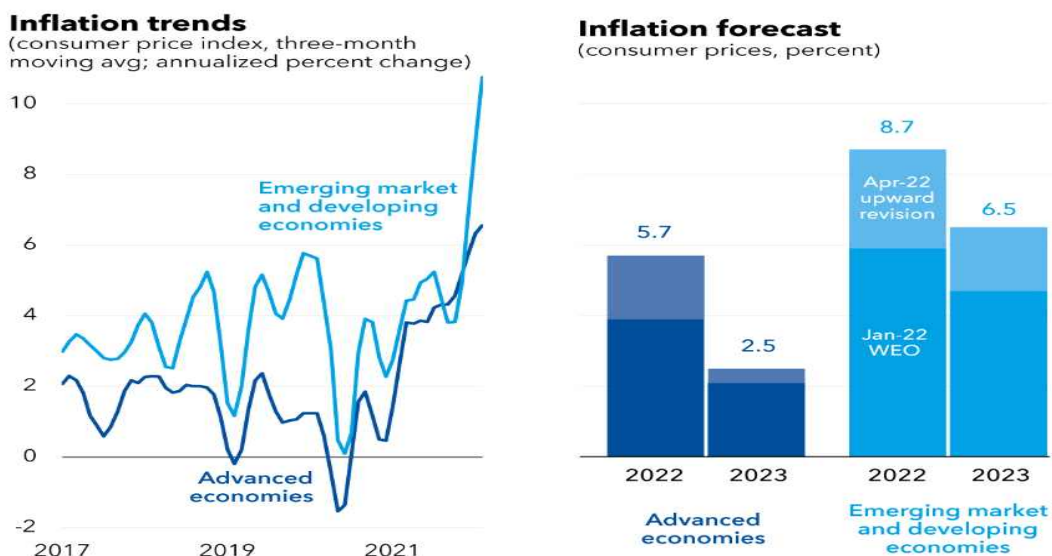
'22.5.23, 정책지원센터

※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급박하게 변화하는 국제경제 및 에너지 시장을 살펴보고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제 및 에너지 시장 동향' 보고서를 한시적으로 월간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함
※ 국제경제동향: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 에너지동향: 유가 및 천연가스 동향 등

국제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IMF의 예측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은 '21년의 6.1%에서 '22년과 '23년에는 3.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당초 1월 예상치보다 각각 0.8%p, 0.2%p 낮은 수치로 조정(4.19)됨
 -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정부의 대응능력,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통화정책,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이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
- (Inflation)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요의 증대, 치솟는 원자재 비용 등에 따라 더 오래 상승할 것으로 예상

<그림-1> 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IMF)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석유, 가스 등 원자재 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고 있고 '23년에도 식량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의 영향 및 노동력 부족에 따라 임금이 상승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38년만에 최고인 5.7%에 도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8.7%를 기록, '23년에는 각각 2.5%와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제경제 동향 단신) 달러 강세로 기인한 세계경제의 위험요소(Financial Times)
- 연초 이후 달러는 달러인덱스(DXY, 통화의 글로벌 가치 지수)가 약 10% 상승하는 등 최근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달러 초강세 상황임. 현재 달러의 급격한 상승은 불안정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달러 절상은 수입가격의 상승, 외채 상환 비용 증가, 금융 불안정성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특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이미 많은 자원과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있는 국가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음
 - 달러 절상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각국은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 수익률을 개선하면서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할 것임

<그림-1> MSCI 대표 신흥국 지수 및 달러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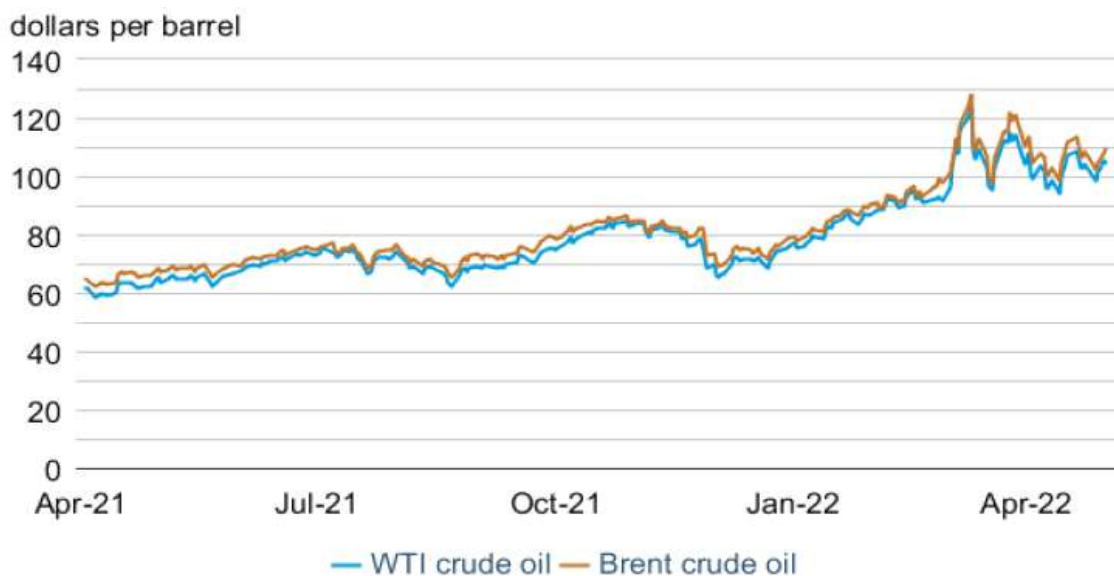


*출처: Financial Times, Refinitiv

에너지 동향

- (유가) '22년 5월 5일, 브렌트유 가격은 '22년 4월 1일의 배럴당 104.39 달러에서 6.51달러 상승한 110.9달러, WTI유 가격은 같은기간 동안 8.99달러 상승하여 108.26달러를 기록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2> 유가 추이 및 전망(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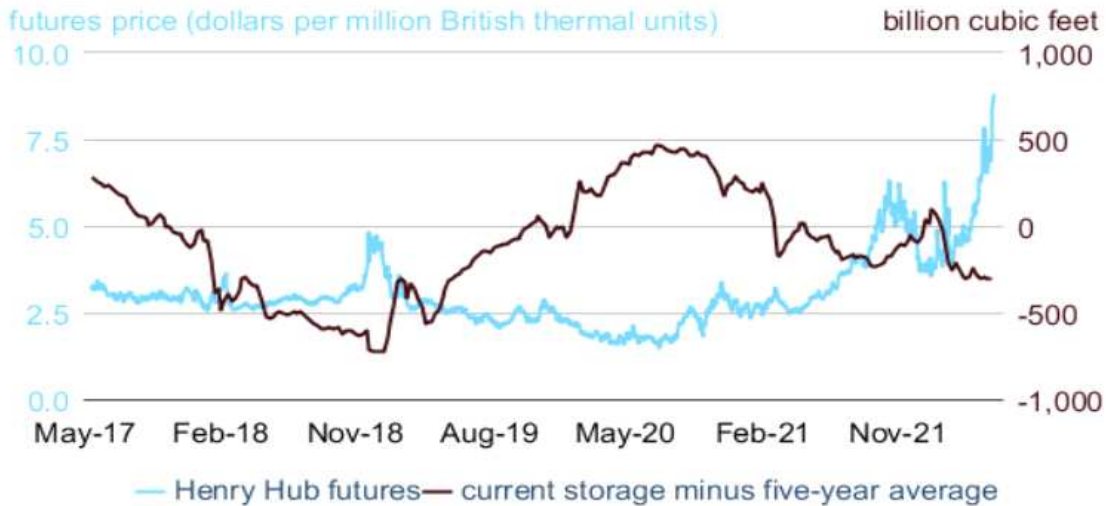


*출처: US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22.5

-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감소, 러시아 제재로 인한 공급 차질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재고수준 등에 따라 유가는 계속 \$100/b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면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 생산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고 있어 '20년 3분기부터 '21년 4분기까지 6분기 연속으로 세계 석유 재고가 감소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형국, 러시아 제재와 EU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와 이행속도, 리비아, 예멘, 이란 등에 대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및 잠재적인 새로운 전개,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및 정부의 대응 능력 등이 유가 등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천연가스) '22년 5월 5일, Henry Hub에서 인도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22년 4월 1일보다 \$3.06/MMBtu 증가한 \$8.78/MMBtu로 거래됨. 4월 천연가스 평균 종가는 3월 평균보다 \$1.73/MMBtu 상승한 \$6.70/MMBtu로 '08년 이후 4월 실질 평균 월평균 최고가를 기록함

<그림-3> 천연가스 가격 및 저장량 추이(EIA)



*출처: US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22.5

- 수요 대비 예상보다 낮은 생산량, 5년 평균보다 낮은 재고 저장량(4월 말 재고량은 1,597Bcf로 5년 평균보다 17% 낮음), 주거·상업·전력(발전) 부문에서의 높은 수요 등에 따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천연가스 수요는 '21년 2월 이후 공급을 초과했고, 이러한 추세는 '2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Henry Hub 기준) 선물 가격은 '22년 2분기부터 '22년 4분기까지 평균 \$8.34/MMBtu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동향 단신) EU의 신규 청정에너지 정책(Financial Times)
 - EU 집행위원회는 '30년까지 에너지의 절반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산하길 원하며 이는 현재의 두배 이상되는 수치로, RepowerEU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유로의 비용이 들지만 연간 840억 유로의 연료 수입액을 절감하여 상쇄할 수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가지 정책으로,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할 필요성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EU는 앞으로 건

설되는 모든 신규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임

-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공공건물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갖춰야하고 에너지 소비가 높은 건물부터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태양에너지 설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함
 - RepowerEU보고서에서 제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30년까지 가스 소비를 30%(약 1,000억m³) 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동 계획안은 EU 회원국 및 EU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 (에너지 동향 단신) 사우디 아람코, 1분기 이익 82% 증가(Financial Times)
- 아람코는 치솟는 원유 가격에 힘입어 최근 미 Apple사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으로 선정됨. '22년 1분기 동안 순이익은 3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여 '19년 주식 상장 이후 최대 분기 이익을 기록함.
 - 아람코를 비롯한 BP, Shell 및 ExxonMobil 등의 석유기업들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이슈로 인한 석유, 가스 및 정제가격의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음.
 - 아람코의 1분기 자본 지출은 76억 달러였으며, 작년의 총 지출 319억 달러에서 100억~200억 달러 늘어난 400억~500억 달러를 올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적인 성장은 2020년대 중반까지 예상됨
 -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점진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국제적 움직임과 달리, 아람코는 최대 원유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에 있으며, '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도 50% 늘릴 계획으로 Hawiyah 및 Haradh 가스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하루에 13억m³의 생산 능력을 추가할 계획임
 - 또한, 아람코는 국제 다운스트림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폴란드 정유소의 지분 30%를 인수하고 BP와 함께 제트연료를 판매하기 위한 새로운 합작투자를 추진했고, 중국의 30만b/d 규모 정유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기로 합의했음